

설교

Sermon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To Me You Should Return)**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그것이 그냥 뉘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 49:15, 새번역)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Is 49:15, ESV) "Can a woman forget her nursing child, that she should have no compassion on the son of her womb? Even these may forget, yet I will not forget you.

(사 49:16, 새번역)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 보고 있다.

(Is 49:16, ESV) Behold,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of my
hands; your walls are continually
before me.

돌아오라(return)

11번이나 반복

3:1,7,10,12,14,22; 4:1

1.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2절).

(렘 4:1, 새번역)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Jr 4:1, ESV) "If you return, O Israel, declares the LORD, to me you should return. If you remove your detestable things from my presence, and do not waver,

(렘 2:30, 새번역)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Jr 2:30, ESV) In vain have I struck your children; they took no correction; your own sword devoured your prophets like a ravening lion.

(렘 2:35, 새번역)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Jr 2:35, ESV) you say, 'I am innocent; surely his anger has turned from me.' Behold, I will bring you to judgment for saying, 'I have not sinned.'

(마 6:24, 새번역)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Mt 6:24, ESV)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렘 4:2, 새번역) 네가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Jr 4:2, ESV) and if you swear, 'As the LORD lives,' in truth, in justice, and in righteousness, then nations shall bless themselves in him, and in him shall they glory."

(눅 3:11, 새번역)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Lk 3:11, ESV) "Whoever has two tunics is to share with him who has none, and whoever has food is to do likewise."

(눅 3:13, 새번역)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Lk 3:13, ESV) And he said to them, "Collect no more than you are authorized to do."

(눅 3:14, 새번역)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Lk 3:14, ESV) Do not extort money from anyone by threats or by false accusation,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s."

II.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3-4절).

(렘 4:3, 새번역)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Jr 4:3, ESV) For thus says the LORD to the men of Judah and Jerusalem: "Break up your fallow ground, and sow not among thorns.

(호 10:12, 새번역)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밟아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Hs 10:12, ESV) Sow for yourselves righteousness; reap steadfast love; break up your fallow ground, for it is the time to seek the LORD, that he may come and rain righteousness upon you.

(렘 4:4, 새번역)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Jr 4:4, ESV) Circumcise yourselves to the LORD; remove the foreskin of your hearts, O men of Judah and inhabitants of Jerusalem; lest my wrath go forth like fire, and burn with none to quench it, because of the evil of your deeds."

(신 10:16, 새번역)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Dt 10:16, ESV) Circumcise therefore the foreskin of your heart, and be no longer stubborn.

(롬 2:28, 새번역)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갓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Rm 2:28, ESV) For no one is a Jew who is merely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outward and physical.

(롬 2:29, 새번역)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Rm 2:29, ESV) But a Jew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a matter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letter. His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Ⅲ.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5-10).

(렘 4:7, 새번역) 사자가 일어나서 숲 속에서 뛰쳐 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뒀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Jr 4:7, ESV) A lion has gone up from his thicket, a destroyer of nations has set out; he has gone out from his place to make your land a waste; your cities will be ruins without inhabitant.

(렘 4:6, 새번역)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며, 지체하지 말고 대피
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
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Jr 4:6, ESV) Raise a standard
toward Zion, flee for safety, stay not,
for I bring disaster from the north,
and great destruction.

(렘 4:17b-18, 새번역)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러한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 속에까지 파고들었다.

(Jr 4:17b-18, ESV) because she has rebelled against me, declares the LORD. Your ways and your deeds have brought this upon you. This is your doom, and it is bitter; it has reached your very heart."

(렘 4:10, 새번역) 그 때에 내가 이렇게 아
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
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
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
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Jr 4:10, ESV) Then I said, "Ah, Lord
GOD, surely you have utterly deceived
this people and Jerusalem, saying, 'It
shall be well with you,' whereas the
sword has reached their very life."